데이터로 환원 불가한 삶의 실상 찾아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② AI 생성 이미지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AI가 만들어 내는 감동?

'상상을 현실로'라는 진부한 문구가 이토록 소름 돋는 현실이 된 적이 있었을까. 최근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성취는 충격적이다. 복잡한 코딩도, 오랜 훈련도 필요 없다. 그저 채팅창에 명령어 몇 줄을 적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 속에서 마법이 시작된다.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특화 AI '미드저니(Midjourney)', 영상 제작을 자동화하는 '런웨이(Runway)', 음악 창작을 돕는 '수노(Suno)' 같은 도구들이 등장하며 창작의 경계를 급격히 허물고 있다. 몇 초 만에 영화 예고편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며 작가의 구상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구현하는 시대다. 이제 창작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 그 자체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술과 창작의 영역만큼은 인간의 고유한 전유물로 남는 것이라 믿었다.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는 AI에 넘겨주더라도, 시를 쓰며 고뇌하고 캔버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는 것은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늘날 AI는 미술대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단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며, 인간 작곡가가 몇 달을 고민해야 할 화음을 순식간에 작곡해 낸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AI의 등장 앞에서, 수많은 창작자는 경이로움 이면에 자리한 서늘한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완벽하게 창작한다면, 과연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실존적 허무함, 불교에서 말하는 근원적 고통인 '고(Duḥkha, 苦)'의 현대적 발현이다. 인류가 쌓아 올린 자부심의 성채가 데이터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AI와 기능적 완성도를 겨루는 경쟁은 이미 결과가 예견된 구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가가 아니라, 그 창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가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압도적인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결코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아물지 않는 상처와도 같은 삶의 흔적들이다.

스투디움과 푼크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 사진에 관한 노트〉(1986)에서 사진을 보는 방식을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그의 미학적 사유를 오늘날의 AI 이미지 위에 겹쳐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렌즈가 되어 준다.

첫 번째는 '스투디움(Studium)'이다. 이는 우리가 교양이나 학습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일반적인 흥미를 말한다. 우리가 잘 짜인 구도, 세련된 색감, 풍부한 역사적 정보를 담은 사진을 보며 "구도가 안정적이군", "색감의 조화가 훌륭하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영역이다. 스투디움은 학습할 수 있는 코드의 세계이며, 보편적인 동의의 영역이다.

데이터는 AI가 처리하는 정보일 뿐
AI 창작물서 푼크툼 느끼기 어려워
푼크툼은 '일체개고' 진리 맞닿아
타인 상처 인식·공명이 '자비'
무결점 세계서 아픔 공명은 우리 몫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하다. 바로 '푼크툼(Punctum)'이다. 라틴어로 '찌름', '상처', '방점'을 뜻하는 이 단어는, 평면적인 스투디움의 영역을 깨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와 보는 이의 심장을 찌르는 사건을 의미한다. 롤랑 바르트는 이에 대해 "사진의 푼크툼은 나를 찌르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사진작가가 의도한 것도 아니요, 비평가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예컨대, 완벽하게 연출된 가족사진 속에서 우연히 찍힌 낡은 신발 한 짝이 나에게만 특별한 과거의 상처를 환기하며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이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 속 안중근 의사의 눈빛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것이 바로 푼크툼이다. 푼크툼은 설명할 수 없는 '찔림'이자, 나의 육체와 기억에서 반응하는 고유한 아픔이다.

이 두 가지 렌즈로 AI를 바라본다면, AI는 명백히 스투디움의 제왕이다. 인류가 축적한 수십억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가장 평균적이고 가장 세련되며 통계적으로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생성한다. AI가 그린 그림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구도는 완벽하며 스타일은 화려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흥미를 느낀다. 완벽한 스투디움의 세계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 속 안중근 의사의 눈빛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바로 푼크툼이다. 푼크툼은 설명할 수 없는 '찔림'이자, 나의 육체와 기억에서 반응하는 고유한 아픔이다.
사진 출처=MBC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다시 평화를 외치다'(2024년 11월 28일 방영)에서 최초 공개된 일본 소장 안중근 의사 유리건판(순국 5분 전 촬영 추정)을 화면 캡처

그러나 AI의 창작물 앞에서는 좀처럼 가슴이 베이는 듯한 아픔, 즉 푼크툼을 느끼기 어렵다. 왜일까? AI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푼크툼은 필멸의 운명을 지닌 존재가 겪는 삶의 우연성과 취약함에서 비롯된다. 상처 입어 본 적 없는 존재,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집합체는 결코 타인의 심장을 찌르는 고유한 상처의 무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AI의 결과물은 너무나 매끈해서 미끄러질 뿐, 우리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며 박히지 못한다.

고통 있기에 가능한 공감, 데이터 너머의 자비

롤랑 바르트가 말한 이 '푼크툼'은 불교가 꿰뚫어 본 삶의 실상, 즉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진리와 깊이 맞닿아 있다. 불교는 인간 존재를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변화하는 취약한 존재로 파악한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이 유한성과 필멸성이야말로 우리 삶에 근원적인 불안과 고통을 드리운다.

AI와 인간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고통이 소거된 존재다. AI에게 데이터는 처리해야 할 정보일 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아니다. AI는 이별의 아픔을 다룬 수만 편의 시를 분석하여 그럴듯한 비유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시를 쓰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다.

반면 인간의 창조성은 바로 이 결핍과 고통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다. 붓다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초월적인 세계로 도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응시하면서, 나와 타인이 모두 똑같이 아파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서 깨달음을 구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 내가 타인의 상처를 알아보고 공명하는 것, 불교는 이를 '자비(慈悲)'라고 부른다.

예술과 창작은 압도적인 기술로 타인을 제압하는 스투디움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색면 추상화처럼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접속하는 숭고한 행위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활동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공감하는 마음에 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AI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문장 너머의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AI시대, 인간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스투디움의 영역에서 AI와 경쟁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을뿐더러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밀한 데이터의 세계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떨리는 공감의 자리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열반의 안락 대신 다시 고통받는 중생 속으로 걸어 들어온 까닭을 되새겨야 한다. 붓다는 무결점의 세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아파하는 존재들의 곁을 택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명하고, 서로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 붓다가 일깨우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증명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